

전 남

서식지 파괴 탓? 기후변화 탓?

‘고천암호’ 가창오리 안보인다

겨울철새 70% 감소... 서식환경 대책마련 시급

“서식지 환경파괴(변화) 탓이나, 따뜻한 날씨 탓이냐?”

국내 유명 철새도래지인 해남 고천암호에 수년째 가창오리 등 겨울철새가 눈에 띄게 줄며 원인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일 해남군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부터 현재까지 고천암호를 찾은 철새는 80만여마리로 예년의 20~30%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고천암 대표적인 철새인 ‘겨울의 진객’ 가창오리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대신 인근 영암호에 가창오리때가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2년동안 고천암호에는 가창오리 대신 쇠기러기, 청둥오리 등만 찾고 있어 더이상 화려한 군무를 볼 수 없게 됐다.

이처럼 철새가 고천암호를 떠나 이유로는 서식지 환경파괴와 기후변화가 거론되고 있으나 전자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환경전문가들은 철새를 고려하지 않는 고천암 이수면 어업권 허가과 개담공사 등으로 인해 생태환경이 열악해지면서 가창오리 등이 고천암호를 떠나버렸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해남 고천암 서식환경이 철새들의 먹이활동에는 아직 적합한 환경임지 모르지만 휴식공간 측면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 환경단체에서는 고천암 개담공사 당시 철새들의 휴식지 특성을 담은 습지조성 등을 주장했다. 반면 되지 않았다.

이와 달리 겨울날씨가 따뜻해지면 서 가장자리때가 해남 고천암까지 남하하지 않고 충남 천수만이나 전북 군산 금강하구엔 등지에 머물고 있다는 일부 의견도 있다.

가창오리 등 겨울철새들이 줄며 철새탐조 관광상품 개발에 나선 해남군의 계획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앞으로 고천암 일대의 철새 서식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해남군 관계자는 “농업 기계화로 과거보다 논바닥이 떨어진 비석자 적은데다 고천암을 통과하는 폭포~완도간 교통량이 증가하면서 철새들이 고천암호를 떠나 영암호로 이동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가창오리는 10월경부터 이듬해 3월까지 우리나라에서 겨울을 보내는 국제적 보호종으로 일출과 일몰 시 화려한 군무가 특징이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성기자 dia@



강진만에 날아든 겨울손님 큰고니

1일 강진군 강진만에 큰고니(천연기념물 제 201호)떼와 어선이 어우러져 그림같은 풍경을 연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고니류 중 가장 큰 몸집을 한 큰고니는 강진만 등지에서 겨울을 나는 철새이다. <강진군 제공>

울금·비파, 건강기능식품으로



간기능 개선·항치매 예방... 2012년 상품화

전남지역의 대표적 난대성 특산자원인 울금(사진 왼쪽)과 비파의 고부가가치 상품화 방안이 제시돼 눈길을 끌고 있다.

한국식품영양과학회 주최로 최근 열린 국제 심포지엄 및 학술대회에서 전남대 전우진 교수와 한국 인삼중양연구소·경희대 이정민 교수·연세대 윤호근 교수와 공동연구 결과 진도산 울금에서 간기능 개선효과, 장흥산 비파 나무잎 추출물에서 항치매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발표했다.

한국 인삼은 현재 비파나무 잎 추출물의 항치매 효과와 울금의 간기능 개선효과는 임상시험 중이다. 임상연구가 완료되는 오는 2012년 초 건강기능식품 소재 상품화를 준비하고 있다.

전남대 관계자는 “울금과 비파 나무의 가능성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산업화 방안이 마련되면 일자리 창출과 특산자원 재배농가의 소득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

함평군 글로벌 인재육성 앞장

영어 우수학생 13명 뉴질랜드 어학연수

함평군(군수 안병호)이 글로벌 인재육성에 앞장서고 있다.

함평군은 지난달 제4회 초·중·고 영어경시대회를 개최하고 우수학생 40명을 선발했으며 이중 13명에게는 뉴질랜드 어학연수의 기회를 제공했다.

특수교육시책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이번 경시대회는 농촌의 열악한 교육수준에도 불구하고 학력수준을 함축 끌어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영어학습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해 글로벌 지역인재양성의 디딤돌이 되고 있다.

이번 경시대회는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 국내 유명 영어평가기관인 (주)와이비엠사에 위탁 실시했고 군내 초·중·고 441명이 참가해 기량을 겨뤘다. 1차 평가결과에서 초등 30명, 중등 30명, 고등부

20명 등 총 80명을 뽑은 뒤 2차 평가, 입기 평가를 통해 40명을 최종 선발했다.

올해로 4번째 경시대회를 실시한 함평군은 1~2회 대회 성적우수자에게 필리핀, 3회 때는 캐나다로 각각 해외어학연수의 기회를 제공했다.

안병호 군수는 “영어경시대회를 통해 지역 학생들에게 학습에 대한 동기 부여와 다양한 영어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인재 양성을 위한 우수정책을 적극 발굴,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함평군은 민선 5기를 맞아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예산을 대폭 확대 지원하는 등 교육환경 개선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부취재본부=황은화기자hwang@



나주에 수도권 기업 4곳 210억 투자협약

(주)위트코·성수기업·승진전자·해농식품

수도권 기업 4곳이 나주에 동지를 든다.

전남도는 1일 오후 도청 서재필실에서 박준영 도지사와 임성훈 나주시장, (주)위트코 등 4개 기업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투자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투자협약에 따라 경기도 군포시에 본사가 있는 (주)위트코(대표이사 허준영)는 나주 일반산단 2만㎡ 부지에 2013년까지 80억원을 투자해 공장 설비 자동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설비관리) 제조공장을 설치하게 된다.

또 경기도 시흥에 본사를 둔 성수기업(대표 박세욱)과 승진전자(대표

박재범)도 나주에 각각 50억원(부지 1만3000㎡)과 40억원(부지 7000㎡)을 투자해 냉장고와 정수기 등의 내·외장 플라스틱사출 제품과 히터 어셈블리(냉장고 온도유지장치) 등을 생산하는 부품공장을 건립한다.

이들 업체는 광주 대우일렉트로닉스 협력사로 생산제품을 전량 납품하고 있어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확보하고 있다.

나주는 지난해부터 수도권으로부터 대우일렉트로닉스 협력사 7개사가 투자해 공장을 완공, 제품을 생산하고 있어 전자부품산업 집적지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이밖에 인천에서 이전하는 해농식품(대표 조병주)은 나주 일반산단 9000㎡ 부지에 40억원을 투자해 김과 미역 등 전남산 친환경 수산물을 활용해 제품을 생산할 계획이다.

박준영 전남지사는 “전남의 투자환경이 많이 개선되고 그동안 투자했던 기업들의 성공사례가 알려지면서 수도권기업의 전남 이전이 늘고 있다”며 “투자기업들이 기업경쟁력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인력 채용과 직원들의 주거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도와 시군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 2008년부터 수도권 기업 유치에 집중한 결과 이날까지 모두 65곳을 유치했다고 밝혔다.

/정필수기자 bungy@

소외된 이웃에 든든한 버팀목

전남보건진료원 ‘들꽃봉사단’ 발대식

전남지역 농·어촌 보건진료소장들의 모임인 전남보건진료원회가 봉사단을 창단,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전남보건진료원회(회장 김옥 장성동)는 지난 1980년부터 30여년간 전남의 도서벽지 등에서 소외된 이웃을 돌보고, 임산부와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으로 지역민들과 동고동락해 같이 해왔다.

김옥 전남보건진료원 회장은 “이번 발대식은 감춰졌던 봉사의 주체를 알리고, 들꽃봉사단의 미래역량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지역 다문화가정과 독거노인, 조손가정 등을 대상으로 생활편의 위주의 봉사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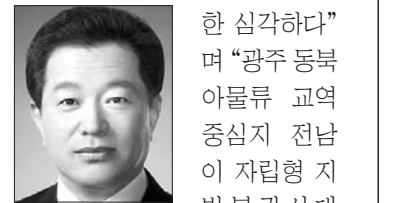
전남 보건진료원회 회원 340여명

/중부취재본부=김은호기자 yongho@

근화건설 김호남회장 목포대서 특강

전남 서남권 건설업체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건설업 관련 산·학·연 시스템구축과 기술력보다는 네트워킹에 바탕을 둔 지식·비기 경쟁력의 반영이 건설업의 진화 및 대변화가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근화건설 김호남(62) 회장(목포 중앙고 이사장)은 최근 목포대에서 실시한 특강을 통해 “우리 지역은 지역발전 전방에서 여전히 소외돼 왔고 지역 불균형도



한 심각하다”며 “광주 동북아를 교육·중심지 전남이 자립형 지방분권시대를 선도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상무랜드공인중개사
건물(임대용,투자용)
토지(상부지구 상업지역)
건물(임대용,투자용)

금산공인중개사
상무신도심 상·업·용·지 (C1지역) 매매
장점
1. 주상복합(공동 APT) 가능
2. 광로변 최고 광고 효과
3. 롯데마트, 상무병원 건너
4. 최고 교통 접근성
5. 18 광로변

대인동삼일부동산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 시내 전지역 상가중점
포기 잘 형성되어 물세가 더
러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있
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
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일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시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
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
을 다하겠습니다.

현대공인중개사
토지 급 매매
광산구 양동, 계획 관리지역, 28.845㎡(8.725 평), 토지 전체면적중 15.818㎡(4.784평)전용
수익성 좋은 상가건물 매매
광산구 우산동, 대지321㎡(297평) 건물 지하1층
지상6층 1326㎡(401평) 임대 내용 : 보증금2억1천5백만원 월 74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아파트
2,300세대대인근, 대출 3억원, 매매가12억원

GG경매컨설팅(주)
대표이사 노찬구 ☎ 222-1907
공인중개사 010-9311-1907
【공인중개사 : 강영희 ☎ (062)364-8700 H.P 010-4608-3700】
▶ 아파트
▶ 상가주택
▶ 토지(전,답,임야,대지)
▶ 주택
▶ 임대주택
▶ 빌라/다세대/오피스텔